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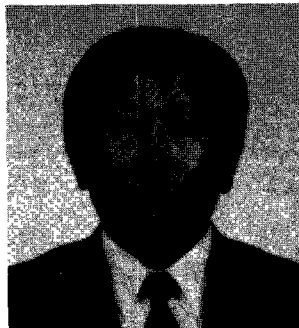
# 병아리 생산잠재력 37.9% 증가

신미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 양계업계에는 어두운 먹구름이 깔리고 있다.

지난해 말로 예정되었던 UR 농산물 협상이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결렬됨에 따라 이제는 한미간의 쌍무적 무역협상으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하기에 우리 축산인들은 미래예측이 더욱 더 불가능하게만 여겨진다.

'90년도에 우리나라가 GATT에 제출한 오퍼리스트에 닭고기가 NTC 품목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질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우리 업계의 갈 길은 멀고도 험하게만 느껴진다.

양계업계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까지 그동안 정부 당국



김 중 설  
전북양계조합 육계사업소장  
영양농장 대표

에서는 무엇을 하였으며 앞으로 축산업자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더욱이 축산단체에서 몇년을 두고 주장해 온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아직도 관철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마사회의 관할부처 이관은 1천만 농민들이 정책에 대한 불신의 벽을 두텁게 하는 요인으로 등장되었다. 이같은 확고한 정책의지의 결여속에서 우리 양축가는 누구를 믿고 이 업에 종사할 것인가.

최근 육계업자중 폐업 또는 전업하는 농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닭고기는 수입제한 품목에 묶여 있기는 하나 언제 어떻게 바뀌어 수입자유화가 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총계입식수수 ( I )

'87년 하반기 육계업계에 엄청난 불황이 닥치자 종계가격도 폭락하기에 이르러 수당 5백원대로

폭락하는 등 양계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황을 맞이하기에 이르렀으며 그당시 종계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했다.

'89년 총계입식수수는 2,623천수로 '88년 대비 6.5% 증가에 그쳤으나 전반기 입식수수는 1,214천수로 '88년 동기 대비 7% 감소

## 통계자료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평균)	
( I ) 총 계 입식수수 (수수)	88	131,000 (21.9)	177,891 (11.0)	297,766 (52.7)	267,400 (20.4)	198,910 (17.2)	232,000 (14.7)	297,510 (6.0)	189,250 (-26.3)	240,257 (0.1)	210,762 (7.5)	111,278 (7.5)	108,518 (-14.2)	2,462,542 (4.7)	
	89	85,386 (-34.8)	201,500 (13.3)	278,935 (-6.3)	235,998 (-11.7)	222,005 (11.6)	190,080 (-18.1)	259,769 (-12.7)	218,572 (48.8)	246,765 (2.7)	227,100 (7.8)	209,250 (188.0)	184,434 (70.0)	2,622,794 (6.5)	
	90	111,203 (30.2)	242,823 (20.5)	306,430 (9.9)	307,645 (29.9)	319,241 (43.8)	284,700 (49.8)	379,672 (46.2)	424,440 (50.7)	360,178 (46.0)	360,698 (58.8)	211,531 (1.1)	215,651 (16.9)	3,524,212 (34.4)	
( II ) 실 용 계 감 재 력 (천수)	88	22,532 (4.3)	23,373 (3.3)	24,283 (2.4)	25,258 (1.1)	25,477 (0.0)	22,321 (-9.5)	23,191 (5.3)	20,542 (-3.1)	18,845 (-4.9)	19,087 (-2.7)	20,072 (-3.6)	20,125 (0.2)	265,106 (-0.6)	
	89	20,471 (-9.1)	20,983 (-10.2)	22,136 (-8.8)	23,597 (-6.6)	24,435 (-4.7)	24,914 (11.6)	24,509 (5.7)	23,010 (12.0)	21,919 (16.3)	22,117 (15.9)	23,615 (17.7)	25,052 (24.5)	267,758 (1.0)	
	90	26,206 (28.0)	27,866 (32.8)	30,357 (37.1)	32,891 (39.4)	34,716 (42.1)	36,209 (45.3)								
( III ) 실 용 계 입식수수 (천수)	88	6,726 (-5.7)	8,972 (21.1)	10,835 (34.8)	11,554 (30.1)	14,527 (39.1)	13,411 (18.9)	13,428 (21.6)	11,925 (16.6)	10,888 (18.8)	10,910 (22.7)	11,087 (35.8)	11,505 (52.3)	137,857 (27.4)	
	89	11,215 (66.7)	10,900 (21.5)	13,127 (21.2)	12,882 (11.5)	14,971 (3.1)	17,233 (28.5)	15,239 (13.5)	12,859 (7.8)	11,225 (3.1)	11,799 (8.1)	11,427 (3.1)	11,466 (-0.3)	154,343 (12.0)	
	90	11,316 (0.9)	10,839 (-0.6)	12,655 (-3.4)	13,696 (6.3)	15,719 (5.0)	16,665 (-3.3)	16,647 (9.2)	14,501 (12.8)	13,394 (19.3)	13,916 (17.9)	13,668 (19.6)	13,206 (15.2)	166,222 (7.7)	
( IV ) 병 아 리 가 격 (원)	88	231 (11.1)	300 (38.9)	240 (-13.0)	136 (-57.6)	157 (-55.5)	171 (-54.4)	156 (-55.6)	219 (23.0)	276 (93.0)	269 (144.5)	368 (74.4)	385 (179.0)	242 (1.3)	
	89	384 (66.2)	377 (25.7)	297 (23.8)	357 (162.5)	269 (71.3)	385 (125.1)	379 (142.9)	374 (70.8)	381 (38.0)	360 (33.8)	411 (11.7)	419 (8.8)	366 (51.2)	
	90	425 (10.7)	429 (13.8)	435 (46.5)	457 (28.0)	473 (75.8)	468 (21.6)	436 (15.0)	449 (20.1)	424 (11.3)	417 (15.8)	450 (10.9)	452 (7.9)	443 (21.0)	
( V ) 육 계 가 격 (원)	88	947 (-5.5)	951 (31.0)	712 (-12.7)	682 (-22.5)	747 (-23.1)	646 (-20.8)	908 (5.8)	1,055 (75.2)	1,014 (98.4)	912 (100.4)	1,094 (79.1)	1,117 (52.8)	899 (20.2)	
	89	1,363 (43.9)	900 (-5.3)	829 (16.4)	803 (17.7)	779 (7.0)	998 (54.5)	1,190 (31.1)	1,265 (19.9)	814 (-19.7)	860 (-5.7)	973 (-11.0)	1,111 (-0.5)	990 (10.1)	
	90	1,232 (-9.6)	1,163 (29.2)	1,336 (61.2)	1,179 (46.8)	983 (26.2)	780 (-21.8)	1,050 (-20.6)	1,005 (-20.6)	772 (-5.2)	901 (4.8)	857 (-11.9)	788 (-29.1)	1,004 (1.4)	
( VI ) 총계사료 생산실적 (M/T)	88	19,491 (1)	18,734 (12.7)	19,578 (7.6)	19,135 (3.3)	18,763 (-1.0)	16,860 (-8.0)	16,107 (-12.0)	16,469 (-7.8)	17,462 (-5.3)	16,759 (-12.3)	17,837 (1.3)	20,286 (1.6)	217,481 (0.1)	
	89	168 (-6.8)	17,467 (-6.8)	19,867 (1.5)	20,950 (9.5)	21,892 (16.7)	19,404 (15.1)	18,254 (13.3)	18,559 (12.7)	20,176 (15.5)	20,246 (20.8)	21,382 (19.9)	23,667 (16.7)	240,128 (10.4)	
	90	22,394 (23.3)	22,418 (28.3)	26,630 (34.0)	26,452 (26.3)	27,922 (27.5)	25,920 (33.6)	22,869 (25.3)	25,108 (35.3)	28,601 (41.8)	26,972 (33.2)	27,625 (29.2)	30,775 (30.0)	313,686 (30.0)	
( VII ) 육 계 사료 생 산 실 적 (M/T)	전 기	89	28,424 (18.3)	27,197 (12.3)	35,710 (12.2)	36,044 (0.8)	39,590 (0.7)	47,071 (-15.6)	44,156 (15.3)	39,233 (26.0)	33,649 (25.2)	33,504 (17.4)	35,760 (12.2)	37,553 (10.9)	437,891 (12.4)
		90	32,265 (13.5)	33,130 (21.8)	38,750 (8.5)	44,433 (23.4)	56,071 (41.6)	61,443 (30.5)	60,303 (36.7)	54,046 (37.8)	44,617 (32.0)	42,485 (26.8)	48,862 (36.6)	49,143 (30.9)	565,548 (29.2)
	후 기	89	28,319 (-8.8)	33,785 (8.8)	41,357 (2.1)	43,912 (-5.7)	46,463 (-6.9)	48,129 (-13.7)	50,658 (-16.3)	45,414 (10.4)	46,761 (22.2)	39,917 (21.2)	38,167 (8.1)	41,642 (1.9)	504,339 (29.5)
		90	33,768 (19.2)	32,519 (-3.7)	35,895 (-13.2)	38,731 (-11.8)	47,771 (2.8)	59,005 (22.6)	63,110 (24.6)	61,043 (34.4)	55,744 (19.2)	44,027 (10.3)	50,155 (31.4)	55,644 (33.6)	577,412 (14.5)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체의 급격한 소비증가와 자연소비증가를 가산해 볼 때 7% 감소는 실용계 생산측면에서 소비증가를 따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장기불황 뒤에 호황이 이어지자 실용병아리의 부족상태를 가져와 종계를 입추하는데 혈안이 되었으며 '90년 들어 국내생산 종계로서 수요를 감당치 못하게 되었다. 농림수산부는 육용종계 수입쿼터량을 20만수에서 50만수로 늘리는 등 대책마련에 힘을 기울인 결과 '90년도 육용종계 입식수수는 전반기 1,572천수, 하반기 1,952천수로 '89년 동기대비 각각 29.5%, 38.6% 증가되었다.

## 실용계 생산잠재력(II)

'90년도 실용계 생산잠재력은 전년 동기 대비 전반기는 4.7% 감소, 후반기는 7.7% 증가해, 전체 1% 증가에 그쳤다.

'91년도 상반기 잠재력은 1월 28%, 2월 32.8%, 3월 37.1%, 4월 39.4%, 5월 42.1%, 6월 45.3%,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7.9% 증가했으며, 이같은 큰폭의 증가율은 사상 처음있는 일로서 향후 엄청난 수의 병아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실용계 입식수수(III)

실용계 입식수수는 생산잠재력과 일맥 상통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90년 상반기에 입식된 수수는 80,890천수로 전년동기 대비 0.7% 증가에 그쳤으나 하반기는 85,332천수로 15.3% 증가되었다.

월별 실용계 입식수수를 살펴보면 /4분기 1.2% 감소한 반면 2/4분기 2.2%, 3/4분기 13.3%, 4/4분기 17.6% 증가했다. '90년말로 갈수록 증가폭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증가는 '91년 상반기 생산잠재력과 이어질 것으로 확신됨에 따라 향후 병아리 생산수수는 큰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 병아리 가격(IV)

'87년 하반기부터 육계값이 장기불황에 진입하게 되자 '88년 2/4분기에 병아리가격도 폭락하기에 이르렀다. 일부지역에서 소형종 병아리가 1백원 이하에 거래되는 등 종계장 역시 육계농가 못지않은 불황을 맞이하여 도산농가가 속출하였다.

이에따라 하반기가 시작될 무렵부터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가격이 치솟기 시작한 병아리가격은 '90년 들어 일부 농장에서 5백원을 상회하는 가격에 입추하는 등 연평균 433원이란 육계업 사상 최고의 시세를 기록했다.

## 육계가격(V)

육계가격은 전년대비 '89년

10.1%, '90년 1.4% 상승한 반면 병아리가격은 51.2%, 21.0% 상승되어 '90년도 하이 평균가격 1,004원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 종계사료 생산실적(VI)

'89년도 종계사료 생산실적은 '88년 대비 10.4% 증가했으나, '90년도 전반기는 28.8%, 후반기는 30% 이상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종계사료 생산은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 육계사료 생산실적(VII)

'89, '90년 육계전기사료는 전년대비 7.4%, 23.2% 증가한 반면 동년 후기사료는 4.0%, 5.4% 감소하였고 하반기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예년과 달리 '90년도 들어 전기사료에 비하여 후기사료 생산이 증가하지 못한 것은 양념통닭의 소비증가로 세미브로 출하가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육계경기전망

'91년도 육계가격은 그리 높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생산비가 줄어 육계업자에게는 지난해보다 득이 많은 해가 될 것 같다.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분석되면 쉽사리 입추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병아리가격은 '90년의 전반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실히됨에 따라 느긋

한 심정으로 매회 관망하는 자세를 취한 후에야 입추할 것이다.

최근에 일고 있는 생산성 저하가 종계장에 얼마만큼 파급되어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지가 향후

병아리 생산에 변수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1/4분기가 지나면서 해소될 것으로 가정해 볼 때 앞서 설명한 통계자료와 양계협회에서 발표하는 10대 사료업체 육계사료

생산실적, 경제상황, 경험, 출하월의 소비지수 등을 감안하여 값싼 병아리를 입추하였을 경우 생산비 이상에서의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91년 육계가격 700~900원 예상

주 재 진

천호부회장 천안영업소장

희 망찬 91년을 맞이하여 모든 전국 육계인 모두에게 항상 좋은 일이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90년도 육계업은 부화장의 유래 없는 호황을 맞이하여 고가의 병아리 가격이 형성된 반면에 육계 가격은 전반기에는 생산원가 이상으로 유지되었지만, 후반기에는 생산원가 이하로 형성되어 다수의 생산자가 적자를 보는 한해였다.

〈표 1참조〉.

이런 원인은 병아리 가격이 연중 높게 유지되었고 사료값 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원가의 상승이 더욱 적자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91년도 육계 경기를 전망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육계업계의 모든 여건과 통계를 고려해 보면서 다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자.

## 1. 생산측면

91년도의 생산측면은 90년도 종계(PS)입식수수를 알아보면 예

측할 수 있다. 표2에서 보는 것과 같이 89년도 대비 약 23%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몇년 사이에 종계 증가량으로

〈표 1〉 연도별·월별 육계가격

(단위: 원/kg)

연도 월별	86	87	88	89	90
1	966	1,002	947	1,363	1,168
2	740	726	951	900	1,142
3	650	816	712	829	1,301
4	800	880	682	803	1,132
5	957	972	747	779	921
6	898	816	646	998	749
7	895	858	908	1,190	1,065
8	908	602	1,055	1,265	968
9	630	511	1,014	814	781
10	608	447	912	860	890
11	885	611	1,094	1,050	836
12	840	731	1,117	1,150	777
계	815	748	899	1,000	977